

2006 정보통신표준화 10대 이슈&포커스 ISSUE & FOCUS



1 한국, ITU에서 NGN 국제표준화 계속 주도



2 TTA, 지상파DMB 표준 제정

1

NGN 국제표준화 주도권은 계속~ 우리가!

차세대통신망(NGN)에서 융합서비스 표준안은 우리가 주도한다.

우리나라는 2006년 1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전기통신연합(ITU) 표준화회의에서 권고안 2개를 제의해 최종 승인까지 이끌어냈다.

우리나라는 기고서를 제출한 △기존 IP망 진화 표준 △관리형 전송서비스 표준 △망 접속제어 표준 등 4건의 표준이 신규 표준화 아이템으로 결정됐으며, 7명의 한국측 에디터도 선임되는 등 NGN 분야 국제표준화 주도국으로서의 입지를 재확인했다.

2

지상파DMB 표준 우리가 앞서 나간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2006년 10월 지상파DMB 관련 표준 12건을 제정해 부가서비스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에 데이터방송과 유료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표준이 제정됨으로써 향후 활성화와 사업자들의 수익 확보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TTA가 제정한 표준은 지상파 및 위성 DMB에 적용하는 교통여행정보(TTI) 서비스, 수신제한시스템(CAS), 전자프로그램가이드(EPG) 등과 관련한 12건이다.

3 IPTV 표준화 탄력을 받다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IPTV 분야에서 국제표준화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ITU가 주최하고 TTA가 주관하는 IPTV 국제표준화회의의 '제2차 IPTV 포커스그룹회의'를 2006년 10월 17일 국내에서 개최했고, 이에 앞서 4월 19일에는 TTA가 IPTV 국내표준화를 추진할 IPTV 표준화위원회를 발족시켰다.



3 IPTV 국제표준화회의의 국내 개최

4 모바일 3D 표준안 드디어 첫선 보여

3차원(D) 모바일게임 대중화를 위한 계기가 마련됐다. 즉 모바일3D표준화포럼이 3D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API) 표준 '메가 1.0'을 발표한 것이다. '메가 1.0'은 3D 게임 개발에 필요한 애니메이션 제작, 그래픽 렌더링, 객체정의 등의 규격을 포함하고 있다.

모바일3D표준화포럼은 '메가 1.0'을 TTA표준으로 정식 등록하고, 무선인터넷 표준 플랫폼을 개발하는 한국무선인터넷표준화포럼(KWISF) 산하 위피표준화위원회에도 위피용 확장 3D 그래픽 표준으로 제안했다.



4 모바일 3D 표준안 첫 발표

5 무선인터넷 솔루션 국제표준화의 길 열려

TTA가 국내 무선인터넷 솔루션의 국제표준화를 향한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뎠다. 국제모바일표준화기구인 OMA와 '상호 표준참조 제공 및 표준회의 참가'를 골자로 한 상호협력서를 2006년 7월 교환한 것이다. 이로써 국내 무선인터넷 솔루션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교두보를 확보함과 동시에 국내에서도 OMA 규격 인용이 가능하게 돼 그동안 저작권 문제로 국내표준 채택이 어려웠던 부분이 해결됐다.

이번 협력으로 TTA는 기존 무선망 표준과 아울러 이동통신에서 토털 솔루션 형태의 국제표준화 추진이 가능하게 됐으며, 향후 4세대 이동통신(IMT-Advanced) 표준화 추진을 위한 포석도 확보했다.

TTA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oma
Open Mobile Alliance

5 TTA & OMA

2006 정보통신표준화 10대 이슈&포커스 ISSUE & FOCUS



6
TPEG 국제표준화 탄력



7
GSC, 지상파DMB 등을 2007년 국제표준 협력과제로 선정

6 TPEG 국제표준화 추진 가속 페달 밟다

국내 기관들이 교통·여행자정보 표준프로토콜(TPEG) 국제표준화를 위해 힘을 합쳤다. DMB 길러 애플리케이션으로 주목받고 있는 TPEG의 표준화를 위해 관련 기관이 손을 잡고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TTA·TPEG포럼코리아·ETRI 등은 2006년 7월 합동회의를 열고 중복 업무 정리와 향후 표준화에 대한 절차를 협의했다. 그동안 단계별로 진행해 오던 표준화 작업이 일원화돼 국제표준화 추진 작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

7 지상파DMB·IPTV·RFID 2007년 국제표준 협력과제로 선정되다

2007년 주요 국제표준 협력과제로 선정된 기술이 모두 우리나라가 원천기술을 보유하거나 상용화에 앞선 분야로 결정됐다. 2006년 6월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국제표준협력회의(GSC)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지상파DMB·IPTV·RFID 분야가 2007년 주요 국제표준 협력과제로 선정된 것이다.

또 세계표준화기구 차원에서 지상파DMB 관련 표준화 협력을 강화키로 해 지상파DMB 기술의 해외 확산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각 표준화기구(ISO/IEC JTC1, 국제포럼 및 ITU)에 분산된 RFID 표준화도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참여 중인 ITU-T를 중심으로 추진하자는 결의가 채택됐다.

8 WiBro 4G 이동통신 표준화에 서광 비취

2006년 5월 서울에서는 우리나라가 상용화한 휴대인터넷 기술인 WiBro를 알리기 위한 국제행사가 열렸다. 전 세계 800여 명의 전문가를 초청한 가운데 열린 'WiBro월드포럼'이 바로 그것으로, 포럼에 참가한 국내외 WiBro(모바일 와이맥스) 표준화기구 및 관련 기업들은 4G 주파수 분배를 위해 2007년 10월 스위스에서 열릴 예정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R)의 세계전파통신회의(WRC-07) 전까지 WiBro Evolution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진행, 글로벌 4G 이동통신 표준화에 WiBro를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8 전 세계 80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한 WiBro월드포럼



9 제주에서 열린 국제표준화 ITU-T SG17 회의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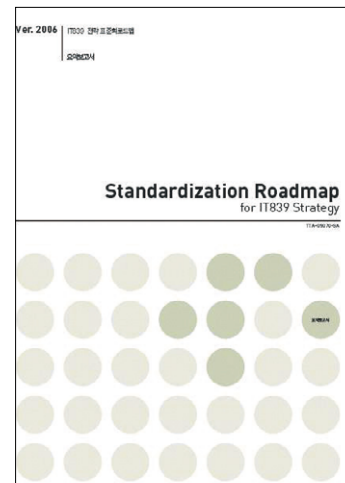
정보보호 분야 국제표준에서도 강국의 면모 과시

정보보호 분야 국제표준도 우리가 주도한다. 우리나라는 2006년 5월 제주에서 열린 정보보호 및 소프트웨어 분야의 국제표준화 ITU-T SG17회의에서 총 35건을 국제표준에 반영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 1명의 부 래포터(Rapporteur)와 5명의 에디터를 배출하며 정보보호 분야에서 표준강국의 입지를 확고히 다졌다.

10

IT839 전략 표준화 로드맵 표준화의 길에 나서다

TTA가 정보통신 표준화 중점기술을 선정하고 세부 추진전략으로 제시한 '2006년 IT839 전략 표준화 로드맵'을 2006년 3월에 발표했다. TTA는 로드맵을 통해 △광대역통합망(BcN) △개방형 서비스 △자동인지주파수(CR) △소프트웨어기반주파수(SDR) △WiBro 진화 기술 △공개 소프트웨어 기술 △컴퓨터그래픽스 등 IT839 분야 37개 중점기술을 확정했다. TTA는 37개 중점기술을 △국제표준 선도가 가능한 국내기술 표준 분야 △산업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국제표준화 경쟁·협력 필요 분야 △국제표준 수용·적용을 통한 상호운용성 확보가 필요한 분야 등으로 나누고 표준화 항목별 세부 전략도 내놓았다.



10 IT839 전략 표준화 로드맵